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요한계시록

요한, 이 책에 대하여 말하다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것으로, 예수로 하여금 머지않아 일어나야 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²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진리입니다. ³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거기에 적힌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 예수의 말씀을 여러 교회에 써 보내다

⁴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과, ⁵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이며,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⁶그분께서는 우리를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또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⁷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니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곡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⁸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 곧 전능하신 분입니다.

⁹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고난과 왕국과 인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밧모 섬^{**}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¹⁰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¹¹그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써서, 그것을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라.”

* **1:1** 계시 감추어졌던 진리를 드러내어 알리는 것.

† **1:4**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 지금의 터키.

‡ **1:6** 제사장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

¶ **1:7** 찌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다(요 19:34).

§ **1:8**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 따라서 처음과 끝을 뜻한다.

** **1:9** 밧모 섬 에게 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 가까이 있다.

12 나는 누가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금으로 된 등잔대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이^{††}가 그 등잔대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15 그분의 발은 깨끗이 정련된 훌륭한 놋쇠 같고, 그분의 목소리는 폭포 소리 같았습니다. 16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칼이 뻗어 나왔는데, 그 칼의 양쪽에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한낮의 해처럼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뵈자,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 이다. 18 나는 ‘살아 있는 이’ 이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나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나중에 있을 일을 글로 써라. 20 네가 본 내 오른손 안의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2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2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는 것과, 결코 그 일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4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너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네가 니콜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주겠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8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9 나는 네가 겪은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이 너를 헐뜯어 말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너는 네가 겪게 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1:13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이**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신 말이다.

‡ **1:18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

¶ **2:6 니콜라당**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성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르던 무리.

§ **2:10 면류관** 글자 그대로는 ‘화관’. 화관은 나뭇잎이나 가지를 둥글게 엮어 운동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 주는 관으로, 승리와 상의 상징이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12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13 ‘날카로운 양날이 달린 칼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 또 나의 충실한 증인† 인 안디바가 너의 도시,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나에게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14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두어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15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도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네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

17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흰 돌도 주겠다. 이 돌에는,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쓰여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18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19 ‘그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 발이 빛나는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네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20 그러나 너를 나무랄 것이 있으니, 네가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 종들을 결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한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음행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 22 나는 그 여자를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겠다. 23 나는 또 그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두아디라 사람들 가운데 나머지 너희들, 곧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은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26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 부수듯이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 † 28 그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꼭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나는 그에게 셋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2:13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유명하였다.

† 2:13 충실한 증인 위험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사람.

‡ 2:14 발락 모압의 왕. 발람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다.

¶ 2:14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

§ 2:15 니콜라당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성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따르던 무리.

** 2:20 예언자로 자처하는 이세벨은 거짓 예언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

† † 2:27 이 두 절은 시 2:8-9과 거의 같다.

사데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3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너는 죽어 있다.² 깨어나라! 네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³ 그러므로 네가 받고 들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러나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시간에 네게 올지 모를 것이다.

⁴ 그러나 사데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⁵ 이기는 사람은 이들과 함께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걸고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⁶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⁷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시고 진실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그분께서 닫으시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⁸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나는 네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나는, 네가 힘을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⁹ 들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참 유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¹⁰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켜 왔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시련이 닥쳐 올 때에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¹¹ 내가 곧 가겠다. 네가 가진 것을 꼭 붙들어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게 하여라.¹²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쓰겠다.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¹³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나의 새 이름도 쓰겠다.¹³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의 편지

¹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멘¹⁵께서 하시는 말씀이다.¹⁵ 나는 네가 하는 짓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거나 뜨거우면 좋겠다.¹⁶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내려 한다.¹⁷ 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너 자신이 비참하고 가엾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¹⁸ 그러므로 내가 네게 충고한다. 너는 내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어라. 이 금은 불로 달구어 더러운 것을 모두 태워 버린 순금이다. 그리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네 벌거숭이 모습을 가리고, 연고를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하여라.

‡ ‡ 3:7 그분께서 여시는 것은... 열 수 없다 사 22:22을 볼 것.

¶ ¶ 3:12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만드신 영적인 도시.

§ § 3:14 아멘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였다. ‘아멘’을 찾아 볼 것.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련시킨다. 그러니 네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20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나는 이겼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22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 하늘나라를 보다

4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목소리, 곧 나팔 소리처럼 들리던 그 목소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겠다.” 2 나는 곧 성령께서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3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이나 홍옥 같았습니다. 보좌 둘레로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4 보좌 둘레에는 스물네 개의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스물네 개의 보좌에는 스물네 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5 보좌에서는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르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십니다. 6 보좌 앞에는 또한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보좌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생물은 황소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였습니다. 8 이 네 생물은 각기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심지어 날개 아래에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9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10 스물네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그분께 경배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11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 나는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2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만한 이가 누구냐?” 3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 나는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5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4:4 스물네 명의 장로 24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12가문과 12사도를 합한 숫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장로들은 하늘의 의회를 구성하고, 하늘에서의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들인 것 같다.

† 5:1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자, 곧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⁶ 그때에 나는 보좌 앞 한가운데에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양은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뿔과 눈은 온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⁷ 그 어린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⁸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은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프를 가졌고, 향이 가득 들어 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⁹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¹⁰ 당신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¹¹ 나는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¹²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¹³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¹⁴ 네 생물이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6 나는 어린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첫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²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싸움에서 이겼고, 다시 승리를 거두려고 말을 달려 나갔습니다.

³ 어린양께서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⁴ 그러자 다른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불빛과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큰 칼도 받았습니다.

[‡] 5:5 다윗의 위대한 후손 글자 그대로는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5:7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⁵ 어린양께서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내 앞에 검은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⁶ 그때에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하루 품삷[§] 으로 고작 말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⁷ 어린양께서 넷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⁸ 내가 보니, 내 앞에 창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 이었고, 그 뒤에는 저승**이 바짝 따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저승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세상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죽일 권세를 받았습니다.

⁹ 어린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제단^{† †}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¹⁰ 이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당신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¹¹ 그때에 그들은 각기 흰 겉옷을 한 벌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¹²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는 검은 염소 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변하고, 보름달이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¹³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¹⁴ 하늘은 갈라져서 두루마리^{¶ ¶} 가 말리듯이 두르르 말려 버렸습니다. 제 자리에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¹⁵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동굴 속과 산의 바위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¹⁶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양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숨겨 다오! ¹⁷ 그분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7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² 그때에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³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⁴ 그러고 나서 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⁵ 유다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르우벤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갓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⁶ 아셀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납달리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므낫세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 6:6 하루 품삷 글자 그대로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을 볼 것.

** 6:8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 가는 세상.

† † 6:9 제단 하나님께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곳.

‡ ‡ 6:9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악과 죄와 죽음과 거짓 신들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소식.

¶ ¶ 6:14 두루마리 글을 쓰기 위해 길게 말아 놓은 종이나 가죽.

7 시므온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레위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잇사갈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8 스불론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요셉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베냐민 가문에서 일만 이천 명

이렇게 이스라엘 § 5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 십사만 사천 명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큰 무리

9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부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흰 겹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의 것입니다!”

11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빙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12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을

영원무궁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3 그때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14 나는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장로가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6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그들 위에 따갑게 내려쬐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열도 그들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17 보좌 가까이 한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 5 7:8 이스라엘 유대 나라 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

*7:14 겹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

일곱 번째 봉인

8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그때 하늘은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²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니다.

³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바칠 향을 많이 받았습니니다. 그것들은 보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 위에 바칠 것이었습니다.⁴ 향을 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니다.⁵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 위로 내리 던졌습니니다. 그러자 천둥소리가 나고 우르르하는 소리가 들리며 번갯불이 번쩍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다

⁶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였습니다.

⁷ 첫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 버렸습니다.

⁸ 둘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⁹ 바다에 사는 생명체 삼분의 일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¹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햇불같이 활활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별은 강의 삼분의 일과 샘들을 덮쳤습니니다.¹¹ 그 별의 이름은 ‘썩’[†]입니다. 물의 삼분의 일이 쓰게 변했고, 이 쓴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¹²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빛을 잃었습니다.

¹³ 내가 보니,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앙이 미치리라! 재앙이 미치리라! 아직도 세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가 남았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리라.”

9 다섯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 어귀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니다.² 그 별이 구덩이 어귀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듯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니다. 해와 하늘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³ 그러자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내려앉았습니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힘을 받았습니니다.⁴ 메뚜기들은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니다. 그것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⁵ 그것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니다.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느끼는 고통과 같았습니다.⁶ 그 다섯 달 동안에 사람들은 죽을 방도를 찾겠으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하겠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⁷ 메뚜기들은 전쟁에 나가는 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처럼 생긴 것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⁸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습니다.⁹ 그것들의 가슴막이는 쇠로

[†] 8:11 썩 아주 쓴 풀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쓰라린 슬픔을 나타낸다.

[‡] 9:1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 9:3 메뚜기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와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운 때가 더러 있었다(출 10장).

[§] 9:3 전갈 강한 독을 쓰는 곤충.

만든 가슴막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갯짓하는 소리는 수많은 말과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 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¹⁰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에 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꼬리에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¹¹ 메뚜기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블루온‡ 이었습니다.

¹² 첫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올 재앙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¹³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황금 제단¶의 네 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¹⁴ 그 목소리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어라.” ¹⁵ 그들은 이 해의 이 달, 이 날,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라고 풀려났습니다. ¹⁶ 내가 들으니,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병의 수가 이억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¹⁷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말들과 그 말들을 탄 기사들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들은 불빛처럼 붉은색과 검푸른 색과 유향처럼 노란색의 가슴막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닮았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¹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향이 땅에 있는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였습니다. ¹⁹ 말의 힘은 입에도 있었고 꼬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²⁰ 이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금이나 은이나 놋쇠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²¹ 그들은 또한 살인과 악한 마술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도둑질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10 그때에 나는 또 다른 권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돌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²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열린 채로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³ 그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⁴ 일곱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받아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하여 두어라. 그것들을 적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⁵ 그러고 나서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⁶ 천사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더는 늦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⁷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⁸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열린 채 들려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⁹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것이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네

**9:10 전갈 강한 독을 쓰는 곤충.

††9:11 아바돈 구약성경에서 아바돈은 죽음 또는 파괴를 뜻할 가진 이름. (욥 26:6; 시 88:1).

‡‡9:11 아블루온 파괴자라는 뜻의 이름.

¶¶9:13 제단 하나님께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곳.

뱃속을 쓰리게 할 것이다.”¹⁰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 뱃속이 쓰렸습니다.¹¹ 그때에 내가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증인

11 나는 측량자로 쓸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² 그러나 성전의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 뜰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³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한을 주리니, 그들이 상복*을 입고 천이백육십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⁴ 이 두 증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이자, 두 개의 등잔대입니다.⁵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적을 삼켜 버립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⁶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⁷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치고 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짐승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⁸ 그들의 주검은 그 큰 도성의 거리에 나뒹굴 것입니다. 이 도성은 상징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이 도성은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합니다.⁹ 사흘 반 동안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주검을 구경할 것이며, 그 주검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주검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¹¹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본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¹² 그때에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¹³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칠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¹⁴ 둘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앙이 곧 닥쳐옵니다.¹⁵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이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이다.”

¹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¹⁷ 장로들이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 § 11:2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11:3 상복 동물의 털로 만든 거친 옷으로, 더러운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입었다.

† 11:7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당신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떨치시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18 못 민족이 분노하였으나,
 이제는 당신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과
 당신을 높이 받드는 크고 작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19 그대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자와 큰 뱀

12 그대에 크고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²여자는 아기를 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자 아파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³그러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⁴용은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삼분의 일을 쓸어서 땅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삼켜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⁵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여자의 아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⁶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보살펴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⁷그대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을 무찌르기 위해 싸웠고, 용과 용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⁸그러나 용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용과 용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더는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⁹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 또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 용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¹⁰그대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시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세상에 떨치실 것이다.”

[‡] 11:19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요한이, 유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보고 있다.

[¶] 11:19 계약의 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글이 담긴 궤.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졌었다.

[§] 12:7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되는 천사.

11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 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너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재앙이 미칠 것이다.
악마가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악마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잔뜩 나 있다.”

13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는,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광야에 자기를 위해 마련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는 뱀을 피해 삼 년 반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 그러자 뱀은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많은 물을 그 여자 쪽으로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으로 토해 낸 물을 삼켰습니다. 17 용은 여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여자의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싸우려 나갔습니다.

18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두 짐승

13 나는 어떤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으나,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가 가진 능력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다 나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감탄을 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4 사람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도 섬기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힘을 가졌는가? 누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5 그 짐승은 뱀내는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흔두 달 동안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6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7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짐승을 섬길 것입니다.

9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0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11 그대에 나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졌으나, 말은 용처럼 하였습니다. 12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음을 받은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13 그리고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환히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14 그 짐승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첫째 짐승의 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15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상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16 둘째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하여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사고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의 수는 육백육십육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14 그대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사만 사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양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어린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물이 힘차게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3 그 사람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으로부터 구출된 십사만 사천 명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4 이들은 여자들과 어울려 부도덕한 성 관계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이들은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하여 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천사

6 또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8 또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위대한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모든 민족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도덕한 정욕으로 빛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 도성이다!”

9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두 천사를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았으면, 10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은 물을 섞어 묽게 하지 않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강한 포도주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이글거리는 유황불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11 그들을 괴롭히는 유황불의 연기가 영원무궁하도록 피어올 것이다. 짐승과 그 짐승의 상을 섬기거나,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한시도

**14:1 시온 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도시를 뜻한다.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¹²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¹³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써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한 일의 기록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그들은 힘든 일로부터 쉬게 될 것이다.”

땅을 추수하다

¹⁴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구름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낱이 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¹⁵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거두어들이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두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¹⁶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그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¹⁷ 또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도 낱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¹⁸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낱이 선 낫을 가진 천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낱이 선 당신의 낫을 들어서 땅의 포도나무 덩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¹⁹ 천사는 땅 위로 자기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큰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²⁰ 그것은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를 거기에 넣고 밟았습니다. 그러자 피가 흘러나와 말갈레에 닿을 정도의 홍수를 이루어 삼백 킬로미터 가량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고난들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

15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² 그리고 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상과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³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참되고 바르십니다.

⁴ 오 주님,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 누구이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신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서, 당신께 경배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⁵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습니다. ⁶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가지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⁷ 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 대접을 주었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가지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릇

16 그때에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곱 천사에게, “가서 일곱 대접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부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²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을 섬기던 자들 모두에게 끔찍하고 괴로운 종기가 생겼습니다.

³ 둘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⁴ 셋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강과 샘에 쏟아 부었습니다. 강과 샘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⁵ 그때에 나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⁶ 그들이

당신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⁷ 또 나는 제단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판결은 참되고 옳바르십니다.”

⁸ 넷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해에 쏟아 부었습니다.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⁹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바싹 타 들어갔고, 이러한 재난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¹⁰ 다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왕국이 어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워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¹¹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짓을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¹² 여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¹³ 그때에 나는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을 보았습니다. 그 영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¹⁴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올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왕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¹⁵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벌거벗고 다니다가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¹⁶ 그때에 세 악령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습니다.

¹⁷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들어 있는 것을 공중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다!” ¹⁸ 그러자 번갯불이 번쩍이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¹⁹ 그 큰

^{††} **16:13 거짓 예언자**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

^{‡‡} **16:14 기적** 여기서는 악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기적을 말한다.

도성이 세 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민족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도성 바빌론을 벌하실 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당신의 무서운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을 바빌론에 내리셨습니다. ²⁰ 모든 섬이 달아나고, 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²¹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사람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박 하나의 무게가 일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

17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강 가까이에 앉은 유명한 창녀^{§ §}가 받을 벌을 내게 보여 주겠다. ²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는 간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했다.”

³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덮여 있었고,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⁴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이 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여자가 저지른 간음죄의 더러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⁵ 여자의 이마에는 숨겨진 뜻을 가진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바빌론,

이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⁶ 내가 보니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의 피로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⁷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와,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숨겨진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⁸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지 않다. 그것이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천지창조 때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인 적이 없는 땅 위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면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살아 있었고 지금은 살아 있지 않으나,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⁹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한 일곱 왕이기도 하다. ¹⁰ 그 가운데 다섯 왕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한 왕은 지금 다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오더라도 잠깐 동안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¹¹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데, 그것은 일곱 가운데 하나이며,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¹² 내가 본 열 개의 뿔은 열 명의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 노릇 할 권한을 받을 것이다. ¹³ 이 열 명의 왕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힘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¹⁴ 그들은 어린양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분은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¹⁵ 그때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창녀[†]가 앉아 있는 강들을 보았다. 그 강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¹⁶ 내가 본 짐승과 열 뿔은 창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가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몸을 먹고, 그 여자를 불로 태울

¶ ¶ 16:21 달란트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의 무게가 약 34킬로그램이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약 20킬로그램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다.

§ § 17:1 창녀 몸 파는 여자.

* 17:8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 17:15 창녀 몸 파는 여자.

것이다. ¹⁷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 뿔의 마음에 어떤 계획 곧 하나님의 뜻은 이루게 될 계획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기로 뜻을 모을 것이다. ¹⁸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킨다.”

바빌론이 무너지다

18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² 천사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위대한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 되고

모든 악한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모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³ 이는,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부도덕한 정욕으로 빛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와 더불어 음탕하게 놀아나고,

세상의 장사꾼들은

그 여자의 지나친 사치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

⁴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당할 재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⁵ 그 여자의 죄가 쌓여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⁶ 그 여자가 준 만큼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 여자가 한 짓을 두 배로 갚아 주어라.

그 여자가 부어 준 독주의 잔을

두 배로 독하게 하여 되돌려 주어라.

⁷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였으니,

그 여자에게 그만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⁸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

그 여자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⁹ 그 여자와 더불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사치를 같이 누리던 세상의 왕들은, 그 여자가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여자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다.
¹⁰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에 잔뜩 겁을 먹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위대한 힘의 도성, 오 바빌론아,

한순간에 심판이 너를 찾아왔구나!’

¹¹ 세상의 장사꾼들은, 더는 자기들의 물건을 사는 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위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¹² 그들이 팔던 물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모시와 자주색 천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온갖 향내 나는 목재와 상아로 만든 갖가지 물건과, 값비싼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이다. ¹³ 그들은 계피와 향신료와 향과 연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 곧 사람까지 팔았다.

¹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사라졌다.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네게서 없어졌으니

아무도 다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¹⁵ 이런 물건을 그 여자에게 팔아서 치부하였던 장사꾼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에 잔뜩 겁을 먹고 멀리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¹⁶ 이렇게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값진 보석과 진주로 번쩍이던 도성이아!

¹⁷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¹⁸ 그 여자가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일찍이 이 위대한 도성과 같은 도시가 있었던가?’ ¹⁹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화로구나! 오 위대한 도성이여, 화로구나!

바다에 배가 있는 사람은 모두

그 도성의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도성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²⁰ 오 하늘이여, 이 도성을 두고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기뻐하라!

그 도성이 그대들에게 한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하셨다.’”

²¹ 그때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바위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바위의 크기는 큰 멧돌만 하였습니다. 천사는 바위를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도

이렇게 사납게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그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²² 하프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이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요,

어떤 종류의 기술자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멧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²³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새어 나오지 않을 것이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사꾼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쳤고

너는 네 마술로 모든 민족을 속였기 때문이다.

²⁴ 그리고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네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19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우렁차게 외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오

영광과 권능은 그분의 것이다.

²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바르기 때문이다.

음행으로 세상을 썩게 만든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당신의 종들의 피 값을

그 여자에게 물리셨다.”

³ 그들이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⁴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⁵ 그때에 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⁶ 그때에 나는, 큰 무리가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시네.

⁷ 어린양의 결혼식 때가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는 준비를 갖추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 19:1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라는 뜻.

⁸ 신부는 밝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네.”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⁹ 그때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렇게 써라.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¹⁰ 이 말을 듣고 나는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너나 네 형제자매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언하기 때문이다.”

흰 말을 탄 기사

¹¹ 그때에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는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¹²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에는, 그분 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¹³ 그분은 피로 적신 옷을 입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¹⁴ 하늘의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¹⁵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긴 포도를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¹⁶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¹⁷ 그때에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저녁 잔치에 오너라. ¹⁸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기사들의 살과, 모든 사람의 살 곧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¹⁹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²⁰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짐승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전에 이 기적들을 보여 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속였던 자입니다. 그들은 산 채로 유향이 타오르는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²¹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가 부르도록 뜯어먹었습니다.

천 년

20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² 천사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서 천 년 동안 사슬로 묶어 두었습니다. ³ 천사는 용을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고는, 그 위에 있는 구덩이 문을 닫고 도장을 찍어 봉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천 년이 다 지날 때까지 용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⁴ 나는 여러 보좌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의 상을 섬기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 19:15 그분은…다스리실 것입니다 시 2:9.

[§] 20:1 바닥 없는 구덩이 그리스어로는 ‘아비소스’.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⁵ (다른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다 지나기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⁶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이들에게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을 무찌르다

⁷ 천 년이 지나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⁸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을 터인데, 모인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⁹ 사탄의 군대는 땅을 가로질러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진터^{††}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의 둘레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¹⁰ 그들을 속인 악마는 유황이 타는 불 못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다

¹¹ 그때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¹²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 일이 그 책들에 적혀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¹³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죽음과 저승^{¶¶}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¹⁴ 그러고 나서 죽음과 저승은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불 못은 둘째 죽음입니다. ¹⁵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 못에 내던져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21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지나가 버렸고, 바다도 없었습니다. ² 나는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찾으려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³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더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세상과 그 안에 있던 이러한 악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⁵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참되고 믿을 수 있으니 받아 적어라.” ⁶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에서 나는 물을 거저 주어 마시게 하겠다. ⁷ 이기는

**20:6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린다.

††20:9 진터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

‡‡20:10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

¶¶20:13 저승 그리스어로는 ‘하데스’.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

§§21:2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도시.

*21:6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ی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⁸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치 못한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부도덕한 성
 관계를 가지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향이
 타오르는 불 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⁹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가득 채워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를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 주겠다.”¹⁰ 그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¹¹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
 찬란한 빛은 마치 희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맑기는 수정과 같았습니다.¹² 그 도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열두 가문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¹³ 그 대문들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¹⁴ 그 도성의 성벽은 열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주춧돌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¹⁵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측량자를 들고
 있었습니다.¹⁶ 도성은 정사각형처럼 짜여 있어서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도성을 재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¹⁷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니, 그 두께[¶]가 사람의 치수로 백사십사 규빗[§]이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치수로 재고 있었습니다.¹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수정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¹⁹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였습니다.²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황보석, 여덟째는 녹주석이었습니다.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²¹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열두 개의 문은 곧 열두 개의 진주였습니다. 도성의 큰 길은 수정처럼
 맑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²²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²³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환하게 밝혀 주고, 어린양이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²⁴ 못 민족이 그 빛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자기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²⁵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²⁶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민족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²⁷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속이는 사람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올라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수정처럼 맑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와,² 도성의 큰길 한가운데를 흘러 내렸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낫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³ 그곳에 더 이상 저주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⁴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⁵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 21:14 주춧돌 건물을 세울 때 맨 아래에 넣는 돌.

[‡] 21:16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83미터. 따라서 12,000스타디온은 약 2,200킬로미터.

[¶] 21:17 두께 또는 ‘높이’.

[§] 21:17 규빗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따라서 144규빗은 약 65미터.

^{**} 21:19 주춧돌 건물을 세울 때 맨 아래에 넣는 돌.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⁶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 ⁷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⁸ 나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듣고 본 다음, 내게 이것들을 보여 준 천사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⁹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나 네 형제자매 예언자로나 이 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¹⁰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봉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¹¹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부정한 채로 내버려 두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옳은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하여 거룩한 채로 있게 하여라.

¹²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겠다.

¹³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¹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고 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들의 걸음을 빠는^{‡ ‡} 사람들은 복이 있다. ¹⁵ 악한 사람들, ^{¶ ¶} 마술쟁이들,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아 행하는 자는 모두 도성 바깥에 남게 될 것이다.

¹⁶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 곧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¹⁷ 성령과 신부가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 “오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시십시오.

¹⁸ 나는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쓰여 있는 재앙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¹⁹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있는 말들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쓰여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사람의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²⁰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²¹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

† † **22:13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 ‡ **22:14 자기들의 걸음을 빠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을 뜻한다.

¶ ¶ **22:15 악한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개들’.

§ § **22:21 21절**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 이 덧붙여 있다.